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환율은 전일 대비 2.0원 상승한 1,110.0원으로 마감

전일 환율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에 소폭 상승했다.

이날 환율은 1,100원대 후반을 중심으로 무거운 흐름을 보였다. 1,109원에서 출발한 이날 환율은 장초반 위안화 절하고시로 1,110원선 위로 올라섰으나 역외 매도세 유입으로 이내 반락했다. 이후 발표된 호주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 역시 달러화에 하락 재료로 작용했으나, 오후중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으로 하단이 지지되며 전일 대비 2.0원 상승한 1,1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이날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전일 대비 4.84원 상승한 1,085.95원에 거래되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09.00	1112.40	1106.30	1110.00	1108.9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81.88	1102.28	1078.25	1099.86

금일 전망

미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기대감으로 1,110원대 초반 상승 전망

금일 환율은 미국 경제 부진으로 금리 인상 기대감이 완화됨에 따라 전일에 이어 무거운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은 전일 대비 2.0원 상승(스왑포인트 고려)한 1,112.35원으로 마감하였다. 전일 당국의 개입으로 1,100원대 중반은 지지되었으나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여전히 하락 우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금일 환율 역시 1,110원대 초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일 아베총리의 경제 부양책이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 역시 달러화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해 금일 엔-원 환율은 상승하는 한편 달러-원 환율은 전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06.60 ~ 1117.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27.89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00원 ↑

■ 美 다우지수 : 18313.77, -90.74p(-0.4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6.2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5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